여야 총선 슬로건 확정…민심 공략 본격화

국힘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민주 "못살겠다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조국 "3년은 너무 길다" 尹대통령 직격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 각 정당은 총선 슬로건을 확정하고 일제히 격전지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정했다. 또 저출산 대책·격차 해소·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를 내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대해 집중했다"며 "말 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 내걸 당 슬로건을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못살겠다'는 암울한 경제, 추락하는 민생, 질식하는 민주주의의 윤석열 정부 2년 시대 상황을 함축한 것이며 '심판'은 이번 총선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란 설명이다.

민주당은 "잘못된 정권을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했다.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서 맨 앞 글자를 한 글자씩 가져온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슬로건을 중앙당사와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 거리 현수막, 선거용 차량, 선거용 벽보와 공보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약칭 조국당)은 '검찰독재 종식'이라는 구호와 함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임기 3년이 남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조국당은 지난 24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대위 명칭을 '파란불꽃'으로 결정했다. 조국당은 선대위 출범식에서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 돼 검찰 독재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현 의석수인 6석을 사수하는 것을 4·10 총선 목표로 잡고 총선 슬로건으로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심판 정의롭게'를 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총선 캠페인 메인 슬로건으로 '거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를 선정해 거대 양당 모두를 저격했다. 거대 양당의 리스크와 무능을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이 갖추진 못한 '미래 비전'과 '도덕성', '민주주의'를 새래운미래가 대신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슬로건으로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로 정했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앞에 괄호를 넣었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괄호 안에는 저출산, 지방소멸, 의료대란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살얼음판' 지역구, 총선 승패 가른다

여야, 60곳 '예측 불허' 분석

여야가 4·10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초박빙 지역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분석 결과 우세를 점치기 힘든 '예측 불허' 지역구가 상당수인 만큼 이들 지역구의 선거 결과가 총선 승패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254개 선거구 가운데 승리 가능성 큰 '우세' 지역은 각각 82곳, 110곳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아직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구는 60곳 안팎으로 분석됐다.

현재 분석 결과가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21대 총선보다 더 많은 '초박빙' 지역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1대 총선에서 득표 1위와 2위의 격차가 3%p(포인트) 이내였던 지역구는 24곳이었다. 이중 수도권은 10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0.7%p)과 광진을(2.5%p)이,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갑(0.7%p), 분당을(2.8%p), 평택갑(2.8%p), 평택을(1.5%p), 남양주병(3.0%p) 등이 초접전 지역구였다.

인천은 동·미추홀을(0.1%p), 중구·강화·옹진(2.6%p), 연수을(2.3%p)에서 3%p 이내 격차로 승패가 갈렸다.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우세·경합 우세로 분류한 36곳을 빼면 12곳이 접전지로 분류된다.

용산, 광진을, 영등포을이 대표적이다. 특히 21대 총선 초박빙 지역구였던 용산과 광진을은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경기 지역은 분당을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초박빙 지역으로 꼽힌다.

분당을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8-20일 조사(성인 500명 대상,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2%)와 민주당 김병욱 후보(40%)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인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던 동·미추홀을과 중구·강화·옹진 2곳을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1.7%p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한 경남 양산을 역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접전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진행한 조사(성인 500명 대상,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7.2%,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0.9%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접전지로 꼽히는 지역구들은 승부처인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이라 승리를 위한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35% 재산 늘었다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4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국회의원 291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03명(35.4%)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7.2%)보다는 많이 감소했다.

증가 폭을 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42명이다. 10억원 이상 8명(7.8%),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명(1.9%),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2명(31.1%),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명(27.2%), 5천만원 미만 33명(32.0%)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188명(64.6%)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자산가가 31명(10.7%)에 달했다.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8명(26.8%),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99명(34.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8명(19.9%), 5억원 미만 25명(8.6%)을 각각 기록했다.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2명(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9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7억7천882만원이었다. /연합뉴스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7일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서 버스를 타고 온 톈진 교민 등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까지 6일간 총선 재외투표

115개 국가 유권자 14만7천989명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 투표)가 27일 시작됐다.

재외 투표는 이날 뉴질랜드 대사관·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재외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7천989명이다.

정당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8일(4월2일) 전부터 선거일(4월10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할 것"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의 기능 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통해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 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안도걸 "정권 심판·민주당 압승 앞장"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을)는 지난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4월10일 정권심판의 날을 맞아 민주당 압승에 앞장서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민주당 광주 동남갑 정진욱 후보, 서구갑 조인철 후보, 북구갑 정준호 후보, 북구을 전진숙 후보, 광산구을 민형배 후보 등을 비롯해 이정희·노동일 상임선대위원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안 후보는 "광주시민 만을 바라보고 성과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동구와 남구가 '호남정치 1번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김성환 "광주천, 랜드마크로 조성"

무소속 김성환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을)는 27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동남을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광주천을 청년과 가족들의 공간이자 광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광주천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을 연결해 통합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이에 더해 대관람차와 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호남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동남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정책통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

전진숙, 광주시간호사회와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을)는 27일 "전날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는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임원진 등이 참석해 간호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 후보는 이날 ▲간호법 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지역통합간호센터 설치 ▲간호교육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된 '간호정책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좌절감이 컸다"며 "간호사의 권익 증진과 광주시민을 위한 간호 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기자

담양 예술계 종사자 대표 모임 "이석형 지지"

담양군 예술계 종사자 대표자들이 주축이 된 '담양을 사랑한 예술인들' 30여명이 무소속 이석형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적임자인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후보는 함평군수 재임 당시 문화 불모지였던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황금박쥐 조형물'을 통해 문화예술 투자에 대한 혜안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는 "담양을 사랑한 예술인들의 마음처럼 역사·문화 예술의 고장인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비축제와 같은 획기적 아이디어를 내고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신정훈 '광주-화순 교통체계 구축' 발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후보(나주·화순)는 27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광주-화순 간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인접한 화순군은 주거·업무 등을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교류하고 있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장래 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

신 후보는 "광주-화순 간 광역교통체계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계 부처와 기관을 설득하겠다"며 "이를 통해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양 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김용재, 성평등 5대 공약 발표

녹색정의당 김용재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을)가 27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성평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추진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의 산재 적용과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며 "성평등한 영육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아빠육아휴직 할당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